

‘한계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 금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박경철 (충남발전연구원)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농촌마을에 대한 개념은 크게 자연마을, 행정리, 법정리 등으로 그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마을은 지역공동체의 최소단위라는 데는 일치한다. 이처럼 지역공동체로서의 최소단위인 마을이 최근 여러 환경적 변화에 따라 마을 자체적으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변화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이다. 최근 도시 산업사회에서의 성장의 한계와 은퇴자의 증가로 농촌으로 회귀하려는 인구는 어느 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 또한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다. 성주인·박시현(2012)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농촌지역 초고령화는 24.9%에서 39.7%로 14.8%가 증가했다.

이처럼 농촌마을의 인구 과소화와 고령화, 그리고 이로 인한 마을의 소멸은 여러 면에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 첫 번째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의 상실을 야기한다. 전통마을은 한국문화의 원형을 고스라니 간직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통마을이 하나 없어지면 박물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고,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말과 같이 마을의 소멸은 사회문화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국토의 관리측면에서의 손실이다. 농촌마을과 농민들이 만들어내는 농촌경관은 그 자체로 유무형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농촌마을과 농업경관에 대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 농촌경관은 시각적, 심미적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휴양과 치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가치를 인정해 경관농업직불제라든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통해 농촌마을과 농업경관을 보호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촌마을이 소멸된다고 하면 이러한 기능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국토는 오히려 관리가 안 돼 황폐화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다. 농촌마을과 농촌인구의 유지는 농업의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런데 농촌마을이 소멸되고 농촌에서 인구가 떠난다면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마을의 유지는 전통문화의 보전, 국토의 관리, 안정적 식량생산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농촌마을의 존속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농촌마을을 어떻게 존속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고 과연 농촌 전체 마을에 대한 정책 투입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 즉, 존속이 가능한 마을과 존속이 어려운 마을, 소위 ‘한계(限界)마을’에 대해 정책 투입을 달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한계마을’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구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갖는다.

첫째, ‘한계마을’의 개념 정립이다. ‘한계마을’과 개념이 유사한 ‘과소마을’, ‘오지마을’, ‘낙후마을’ 등과 비교를 통해 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한계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특히, 가구수와 인구의 기준으로 마을을 구분하고 ‘인구’, ‘토지’, ‘공동체’라는 요인을 통해 한계마을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분류한 ‘한계마을’의 기준이 적합한지를 구명하고 ‘한계마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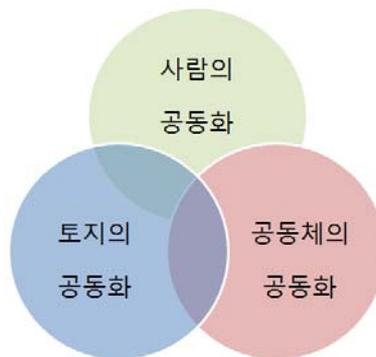
1)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내 한계마을의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여건, 그리고 정책 요구에 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계마을의 실태와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마을의 총인구, 총 가구 수, 초중고 학생 수, 청년 수, 65세 이상 인구수, 독거노인 수, 중증환자 수, 빈집 수, 전출입 현황 등 인구 변화적 측면을 먼저 파악하고, 아울러 주민의 건강과 교통, 상하수도 등 정주와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마을주민의 소득원, 경작 형태와 품목, 유휴면적과 이유, 마을 내 토지거래와 이에 대한 주민의 반응, 영농의 지속가능성과 하천 및 경관의 훼손 실태 등에 관한 내용이다.

셋째,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변화 실태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에는 마을조직의 현황과 활동 유무, 마을 내 공동체시설 현황, 공동체 활동의 종류와 외부기관의 재정적 지원 유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계속 정주 희망 여부, 주민 간 친화도 등이 포함된다.

앞의 세 가지 내용은 일본의 한계마을의 실태에 관한 조사 항목으로 주로 설정되는 사람의 공동화, 토지의 공동화, 공동체의 공동화 조사 항목을 참고로 했다. 하지만 일본의 한계마을에 관한 조사 항목이 다소 단순하게 설정된 면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조사했다.



[그림 1] 한계마을의 주요 측정 지표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 조사된 한계마을은 충남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8곳의 마을(행정리)이다. 한계마을에 대한 기준 설정 문제가 앞서 논의된 바가 있지만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한계마을은 2011년 9월 기준으로 통계상 25가구 이하이거나 65세 인구가 50% 이상인 마을이다. 하지만 통계와

실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을조사 전에 해당지역 면사무소의 담당직원에게 문의 및 확인 후 조사대상 마을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기본적으로 행정리 단위로 실시됐고(하나의 마을이 하나의 행정리인 경우), 하나의 행정리에 여러 개의 자연부락이 있는 경우에는 이장이 거주하는 자연부락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주로 각 행정리 이장과 마을회관 내 주민들이며 조사방법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인터뷰와 마을 내외부의 관찰로 이뤄졌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행정리는 진산면 오항2리(오항동마을), 군북면 보광리(보광마을), 제원면 길곡2리(재뒤마을)와 용화2리(가마골마을), 부리면 어재2리(압수마을)과 신동2리(사기소마을), 복수면 백암3리(배미마을)와 목소리(바탕골마을) 등 6개 면 8개 행정리다. 구체적인 조사대상 행정리와 피조사자의 현황은 다음 <표 1>와 같다.1)

<표 1> 조사대상 한계마을과 피조사자 현황(2013)

유형	조사대상 마을	자연부락명	피조사자 대표	조사날짜 (보완조사)
과소고령	진산면 오항2리	오항동마을	박○○ 이장 (황○○ 신이장)	4월 24일 (8월 12일)
과소고령	제원면 용화2리	가마골마을	육○○ 이장	5월 7일 (8월 8일)
과소고령	부리면 어재2리	압수마을	장○○ 이장	5월 10일
과소고령	부리면 신동2리	사기소마을	박○○ 이장	5월 10일 (8월 8일)
과소비고령	제원면 길곡2리	재뒤마을	김○○ 이장	5월 7일 (8월 8일)
비과소고령	군북면 보광리	보광마을	이○○ 이장	4월 24일
비과소고령	복수면 목소리	바탕골마을	길○○ 이장	5월 22일 (8월 12일)
비과소비고령	복수면 백암3리	배미마을	윤○○ 이장	5월 22일

II. 이론적 배경

1. ‘한계마을’의 정의

‘한계(marginal)’라는 용어는 보통 경제학에서 많이 사용되며 그 의미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 즉, 투자에 비해 소득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투자가 늘어날수록 소득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정체되고 그 이후에는 투자에 비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상태를 한계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한계기업’이라는 용어도 경제영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더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하며 이러한 기업은 국가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

1) 본 절에서 사례조사 마을로 선정한 8개 행정리는 앞 절에서 분류한 금산군 농촌마을의 유형구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본 절에서 한계마을로 판정한 기준은 2011년 9월 기준이고 앞 절에서 유형구분은 2013년의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치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절에서 선정한 마을은 통계적 구분과 아울러 현지 면사무소 직원의 추천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보광리, 목소리).

마찬가지로 ‘한계마을’은 오늘날 점점 과소화·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마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학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해 노인들과 부녀자들만 남아있는 마을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마을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는 마을에 대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본래 ‘한계마을’이라는 용어는 우리와 농촌마을 구조가 유사한 일본에서 1990년대 처음 나왔다. 일본의 농촌마을 연구자인 오노아끼라(大野晃)의 주장에 따르면, ‘한계마을’이란 마을인구가 점점 노령화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에 이르러 마을공동체의 기능이 한계에 다다른 마을을 일컫는다. 그는 또한 마을기능의 한계화의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즉,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로 구분했다. 그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한계화(限界化)에 따른 마을의 구분

마을 구분	기준	내용	세대구성
존속 마을	5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	후계자가 확보되어 있고, 공동체의 기능을 차세대에 계승시키는 마을	젊은 부부세대 취학아동세대 후계자 확보세대
준한계 마을	5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	현재는 공동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후계자 확보가 어렵고, 한계마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부부만의 세대 준노인부부세대
한계 마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50% 이상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유지가 한계에 달한 상태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세대
소멸 마을	인구, 세대수 없음	완전히 무거주지가 되어, 마을이 소멸된 상태	-

출처: 大野晃, 2008, 『限界集落と地域再生』, 京都新聞出版センター(조영재 외, 2013 재인용)

이처럼 일본에서는 농촌마을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과소화·고령화 되어가는 마을을 ‘한계마을’로 규정하고 그 기준을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기준은 없다. 즉, ‘한계마을’에 해당하는 용어로는 ‘오지마을’, ‘과소마을’, ‘낙후마을’, ‘공동화마을’ 등이 있으나 그 정확한 개념 정리는 안 되있는 상태이다. 최근 연구 가운데, 성주인·박시현(2012)은 행정리 단위 마을 가운데 가구수가 20호 미만의 마을을 ‘과소화마을’이라고 정의한 바 있지만 과소화마을이라고 해서 ‘한계마을’이라고는 규정할 수 없다. 왜냐면, ‘한계마을’의 정의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어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을 일컫는데 20호 미만이라고 해서 반드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공동체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이 과소화·고령화로 농촌 고유의 공동체적 기능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할 때는 막연히 사용되어 온 ‘오지마을’, ‘과소마을’, ‘낙후마을’²⁾, ‘공동화마을’ 용어보다는 ‘한계마을’이 더 적합한 표현이며 <표 2>와 같이 마을을 네 단계로 구분해 정책 투입을 차별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마을활성화사업 추진에도 유용할 것이다.

2) 낙후마을을 넘어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2009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낙후지역’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어 현재 낙후지역에 대한 법적 정의 자체가 없다. 그 대신 성장추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 용어 정의가 신설되었다(한경원, 2012: 12)

2. 한계마을 연구 동향

일본에서의 ‘한계마을’에 대한 논의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용어조차 생소할 만큼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고 그 대신 농촌마을의 과소화 및 고령화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 진행되어 왔다.

이병기(2010)는 최근 농촌의 과소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라 농촌지역사회의 붕괴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우선 농촌 과소화 실태와 특징을 경험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전개될 농촌 과소화의 실제 모습을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향후 10년 후면 사례 농촌마을의 경우 지금보다도 42% 더 줄어들고, 80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농촌정책기조도 농촌지역 활성화보다는 농촌공동화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조준범(2009)은 농어촌 마을 과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향후 소멸이 예상되는 마을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 장흥군을 대상으로 과소화 마을의 특성을 고찰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과소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작여건(경지율, 임야면적률, 답면적률), 기초생활권 접근성(읍면 소재지 거리,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거리), 마을의 표고, 지역중심접근성(주요 도로거리, 군 소재지 거리) 순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작여건이 불리할수록 과소화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했듯, 한계마을에 대한 논의는 일본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도 많다. 오노야까지(2008)는 “한계마을과 지역재생” 연구에서 과소화 정도에 따라 마을을 구분하고 마을이 존속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제시했고, 과소지역문제조사회(1993)는 “과소지역문제조사보고서”에서 일본의 과소 시정촌의 집락에서 고령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한편, 과소화·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례 연구도 있다. 황달기(2004)는 “일본 농촌사회의 전통적 사회시스템의 붕괴와 재편” 연구에서 현재 일본본의 농촌사회도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근대화와 도시화에 따른 과소화로 협동노동이나 마을 내 교류활동, 연중행사와 영농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관행이 해체되거나 소멸되고 공동체 구성원의 급격한 감소로 문화계승의 라인이 단절되는 등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들어서는 전통적 사회관계는 해체되고 임의집단을 포함한 생애학습이나 이벤트, 축제 등을 통한 새로운 연대와 통합을 모색하는, 즉 마치츠클리(마을만들기)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통합이 이뤄지고 있음을 고찰했다.

한경원(2012)은 유럽지역 내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유럽연합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은 낙후지역 개발에서 분명한 목표 설정, 안정적 재정수단 확보, 지역개발 주체 간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함을 설명하고 낙후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소 중심의 통합적 접근과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속정책이 우리나라에 낙후지역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낙후지역 개념 정립 및 선정지표 개선, 소득과 일자리 창출, 지역의자주적 노력 강화, 지역주도의 통합적 추진체계의 구축 등 네 가지로 요약했다.

Ⅲ. 금산군 한계마을의 사회경제적 실태

1.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

1) 한계마을의 인구 현황

조사된 한계마을의 인구 현황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먼저 전체 인구측면에서 보면, 목소리가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광리가 67명으로 많았다. 인구가 가장 적은 마을은 오

향2리로 24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데 모두 65% 이상의 고령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 65세 이상 인구비율 현황을 보면, 오향2리, 백암3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마을도 모두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를 보면, 목소리가 8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오향2리가 24가구로 가장 적었다. 총 가구수 대비 빈집수를 보면 어제2리가 총 32가구 중 10가구가 빈집으로 약 1/3을 차지했다. 총 가구수 대비 빈집이 가장 적은 마을은 백암3리로 최근 이 마을에는 귀농 및 귀향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3〉 한계마을의 인구 현황

마을명	총 인구	65세 이상	총 가구수	빈집수	독거 노인수	치매/중증 환자수	초중고 학생수	청년수
오향2리	24	24	20	4	11	1	0	0
(오향동마을)	11	11	10	2	9	1	0	0
보광리	67	37	55	15	17	2	3	10
(보광마을)								
길곡2리	50	30	27	4	6	4	2	3
(재뒤마을)								
용화2리	37	31	19	2	4	3	0	2
(가마골마을)	22	17	16	2	4	3	0	1
어제2리	37	19	32	10	7	3	0	0
(압수마을)								
신동2리	33	20	24	5	12	2	3	3
(사기소마을)								
백암3리	45	31	41	3	5	2	1	4
(배미마을)								
목소리	80	44	60	8	15	2	1	4
(바탕골마을)	16	7	12	4	1	1	3	3
리별 평균	46.6	29.5	34.8	6.4	9.9	2.4	1.3	3.3

참고1: 하나의 마을이 하나의 행정리인 경우에는 한 마을에 대해서 조사했고 여러 개의 마을인 경우에는 주로 이장이 거주하는 마을에 대해 조사한 내용임.

2: 위의 통계치는 행정리의 이장의 진술에 의한 수치이므로 실제 행정통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총 인구 대비 독거노인수가 가장 많은 마을은 오향2리로 24명의 인구 가운데 11명이 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및 중증 환자수는 마을별로 1-4명으로 나타났고 학생과 청년(30-40대)이 없는 마을도 오향2리, 어제2리 등 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청년수가 모두 2명인 용화2리를 포함하면 전체 마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마을이 학생과 청년이 없거나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마을의 행정리별 인구와 가구수의 평균을 보면, 총인구는 46.6명, 65세 이상 인구는 29.5명이고, 마을별 가구수 평균은 34.8가구이고 이 중 빈집수는 6.4가구, 독거노인가구수는 9.9명으로 나타났다. 치매 및 중증환자수, 초중고 학생수, 청년수는 모두 3명 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이들 한계마을의 인구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산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간지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대도 다소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여건은 그리 좋은 편에 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접한 대전광역시와 계속 팽창하고 주변에 고속도로 등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면서 금산군의 주변 여건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와 인접하고 최근 들어 귀농·귀촌이 유행을 타면서 전원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금산군을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도시화가 농촌마을 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2) 한계마을의 인구변화와 전입자에 대한 주민 태도

본 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8개 마을 가운데 최근 5년간 마을의 인구 변화를 보면, 감소가 오항2리, 길곡2리, 용화2리, 어재2리, 신동2리 등 5곳이고, 정체되고 있는 마을은 보광리, 백암3리 등 2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마을은 목소리 1곳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최근 요양을 하기 위해 전입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마을 내 외지인의 전입은 마을 내 자연감소 인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한계마을에도 외지인이 전입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귀농자 등 외지인의 마을 내 전입에 대해 환영하는 태도이다. 인구가 점점 과소화 되어가고 마을 내 고령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마을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마을 내 새로운 인구의 전입은 “마을에 사람이 없어 외지인의 전입을 환영한다.” “외지인의 전입에 반대는 없으며 오히려 협조를 잘 한다.” “외지인의 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등 마을의 지속성과 발전에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정작 마을 내 전입한 외지인의 행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외지인 전입에 대한 각 마을주민들의 구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오항2리: 약 20년 전 한 목사가 빈집을 구매했으나 마을에 가끔 올 뿐 완전히 내려오지는 않았다.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귀농, 귀촌자가 오더라도 마을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 마을에서 토지 매매는 거의 없으며 평당 약 15만 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³⁾

보광리: 최근 외지인 3가구가 전입해 집을 지었으며 7가구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에 종종 와 농사를 짓고 농기계도 보관하고 있다. 보광마을에서는 마을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서대산권역 동호인마을)을 유치하고자 노력했지만 외지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도하지 않아 이 계획이 무산됐다. 무척 아쉽기도 하다. 현재에도 마을주민들은 한옥마을과 같이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길 원한다. 현재 안(쪽)보광리에는 사찰의 교육장을 건설하고 있다.

길곡2리: 최근 3가구가 전출하고 2가구가 전입해 들어왔다. 전출은 주로 애들교육과 생활 유지의 어려움 때문이며 전입은 농업과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다. 전입자들은 농사일로 염소, 닭, 장뇌삼 등을 재배하고 있다. 외지인들은 토지를 구입하고 측량한 다음 자신들의 토지에 줄을 쳐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신동2리: 최근 청주에서 오신 분이 전원주택을 짓고 주말에만 와서 생활을 하고 있다. 원래는

3) 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는 마을의 풍광도 좋고 개간지를 활용한다면 여러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마을사람들은 마을에 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외지인을 반겼지만 외지인이 진입 이후 측량을 통해 도로와 하천을 잠식해 들어가 주민들은 지금은 외지인의 진입을 반기지 않고 있다.

위의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전입자와 기존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은 주로 토지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곡2리와 신동2리처럼 외지인이 마을 내 진입한 후 자신의 토지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주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조금씩 양보해 마을길을 넓히고 농로와 수로를 놓았던 두레정신이나 새마을운동시기 협동정신과는 배치되는 행위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로 인해 기존 주민과 새로운 전입자 간 갈등이 증폭이 되어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지만 새로운 전입자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위에 대해 기존 주민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보광리의 경우, 새로운 전입자의 산발적인 토지 소유로 인해 마을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전원마을조성사업이 결국 좌절되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주민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마을의 전입자들은 완전한 귀농·귀촌보다는 농지에 작은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놓고 주말에만 대도시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 반(半)귀농자이다. 이러한 형태의 전입자가 이 마을에 7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한편으로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토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마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에도 좀처럼 참여의사가 없어 마을주민들과도 약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결국, 마을 내 기존 주민들과 새로운 전입자 간 이해와 협력이 마을 내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관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향후 인구변화 전망 및 주민들의 대처 의향

한계마을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지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 전망에는 세 방향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지금처럼 인구가 계속 준다면 언젠가는 마을이 소멸되거나 자연적으로 통폐합될 것이다. 둘째,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새로운 유입인구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농촌 및 산간지역에 귀농, 귀촌, 귀향, 휴양 및 요양 등의 목적으로 농촌을 많이 찾기 때문에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현 상태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그렇다면 한계마을 주민들은 자신의 마을이 향후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계마을 주민들이 전망하는 자신의 마을에 대한 인구변화 전망, 인구 감소 혹은 증가 전망의 이유, 그리고 인구가 감소 혹은 소멸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주민들은 어떤 대처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다.

조사된 8개 마을 가운데 5개 마을주민은 자기 마을의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가운데 오항2리, 용화2리, 어제2리 주민은 10년 전후에는 마을 내 인구가 남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길곡2리와 신동2리는 인구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인구가 지금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3곳으로 나타났다. 백암3리는 앞으로도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보광리와 목소리는 향후 마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암3리의 경우 산간고지대이긴 하지만 대전광역시와 인접해 하루에 8번의 버스가 통행하고 있고 마을 풍광과 인문자원 등이 많아 최근 대학교수, 조경업자 등이 이 마을에 전입해 들어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 상수도 등이 정비된다면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광리는 총 67명의 인구에 총 5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다른 한계마을에 비하면 비교적 큰 규모의 마을에 속한다. 이 마을도 다른 한계마을과 같이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해 현재는 점점 줄고 있지만 반대로 이 마을을 찾는 외지인도 점차 늘고 있다. 서대산 남단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효령 이씨의 제실이 있어 매년 중순

들이 2-3차례 모여 이곳에서 시제를 지내고 있다. 마을의 규모도 상당하고, 마을 고유의 전통문화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약간의 마을개발정책이 투입된다면 이 마을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현재 남아있는 인구의 대부분이 노령층이어서 마을개발을 추동할 젊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외지인의 토지 소유가 점점 확대되어 마을 공동으로 마을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점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해 보인다. 목소리의 경우는 앞서 설명했듯, 대전광역시와는 가깝지만 교통이 두절되어 교통이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이러한 점이 오히려 휴양과 요양에 장점으로 작용해 최근에 귀촌자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4〉 한계마을 주민의 향후 인구 변화 전망과 그 이유

마을명	인구변화 전망	소멸/증가 이유
오항2리 (오항동마을)	10년 전후에는 남지 않을 것임.	-
보광리 (보광마을)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임.	입지가 좋아 외지인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 대전에서 20-30분 거리임
길곡2리 (재뒤마을)	약간 감소할 것임	-
용화2리 (가마골마을)	10년 전후에는 남지 않을 것임	외지인이 들어올 마땅한 공간이 없음
어재2리 (압수마을)	10년 전후에는 10명 정도 남을 것임	자연 감소
신동2리 (사기소마을)	계속 줄어듦 것임.	후손들은 귀향할 의지가 없음.
백암3리 (배미마을)	앞으로도 비슷할 것임	최근에 귀농자들이 늘고 있음. 앞으로 도로, 수도, 간이상수도가 정비된다면 귀농자는 늘어날 것으로 봄
목소리 (바탕골마을)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날 것임.	요양, 휴양 등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음

일부 한계마을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을은 향후 인구가 감소되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마을 주민들은 이처럼 불안한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신의 마을이 점차 쇠퇴하고 결국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역으로 마을을 어떤 식으로든 살려야한다는 동인을 주기도 한다. 조사된 8개 한계마을 주민들 대부분은 이러한 마을의 쇠퇴에 대해 마을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해 대처해 나가야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마을 가운데 어재2리, 신동2리, 백암3리 등 3곳 마을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자원과 자연자원을 가지고 마을을 발전시킬 구상을 하고 있다. 어재2리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해 생태체험마을을 구상하고 있고, 신동2리는 마을 앞 수몰지구에 남아있는 전통가마터를 복원해 이를 활용한 체험마을을 구상하고 있다. 백암3리는 대도시와 인접해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임도와 꽃길을 조성해 내방객들을 맞이하고자 한다. 물론 이들 마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한계마을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마을 나름대로의 사업구상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모습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들 세 마을과는 다르게 용화2리의 경우에는, 마을 자체의 사업보다는 공동주택을 통한 노령자의 공동생활을 구상하

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마을 내 새로운 전입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마을주민들이 쇠퇴해가는 마을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하는 방법을 모색한 가운데 마을에서는 공동주택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마침, 용화2리가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마을에 포함이 되어 마을에서는 현재 낡은 단층짜리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2층으로 개조하고 일층은 공동취사와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2층은 거주도 가능한 생활공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농촌마을의 공동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마을에서 시도되고 있는 고령자의 공동생활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계속 관주할 필요가 있다.

4) 한계마을 주민의 의료 환경과 응급의료 대처 현황

한계마을 주민들은 일반 마을에 비해 노령층의 비중이 높지만 지리적 환경과 교통의 불편함으로 의료환경이 더욱 열악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된 8곳의 한계마을 가운데 6개 마을주민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연로한 노령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절, 디스크, 혈압, 기관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질병은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오지에 위치하고 있고 교통도 불편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시간의 부족으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런 사고는 많지는 않았지만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향2리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 해 겨울, 마을 이장은 밤중에 눈이 많이 내려 새벽에 일어나 마을 안길을 쓸고 집에 돌아와 쉬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당시 72세). 아마도 마을 이장이라는 책무감에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진입로에 쌓인 눈을 무리하게 쓸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간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만약 응급조치를 받았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마을 내 남성은 4명밖에 되지 않고 그들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젊은 이장이 응급조치를 받지도 못하고 사망하자 마을주민들은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길곡2리에서도 74세의 노인이 마을에서 음주 후 집에 돌아간 지 얼마 안 돼 심장마비로 급사한 사례가 있었다. 마을주민들은 홀로 살았던 이 노인에게 해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한계마을 내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통 금산읍 내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 구급차가 금산읍내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20-30분이 걸린다. 이 시간이 짧은 짧은 응급상황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이다. 보광리의 경우 구급차가 읍내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20분이 걸리며, 어제2리의 경우, 30분이 걸린다. 물론 이 상황은 금산읍내의 병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경우를 말한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금산 읍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대전으로 나가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만큼 응급환자에 대한 위험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구급차에 마을까지 잘 오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을 갖는 경우이다. 신동2리의 경우 겨울철에는 마을 입구가 경사가 졌다는 이유로 구급차가 잘 오려하지 않아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금산 읍내에서 마을까지 구급차자 오는 시간은 약 20분인데 이 시간은 공주에서 오는 시간보다 더 늦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한, 백암3리의 경우,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릴 때면 마을 내 버스가 들어올 수 없어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군과 면에 요청을 했지만 지원은 극히 적은 상태이다.

응급상황을 제외하면 한계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면의 보건지소, 군의 보건소와 일반 병원, 그리고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대전으로 나가 치료를 받는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보건지소이다. 물론 마을주민들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출행이 불편한 이들 마을주민들을 위해 보건소에서 직접 마을을 순회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화2리의 경우 한 달에 한번 보건소에서

보건인들이 직접 찾아와 진찰을 하고 간단한 치료를 해주고 있다. 백암3리의 경우 신대보건지소 소장이 자주 찾아와 노령자의 치매검진, 소독약 배포, 폐렴 등 감기약 제공 등의 치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응급차는 보통 일 년에 2-3번 들어오고 대부분 추부에서 들어온다고 한다. 오항2리의 경우, 한 달에 3-4번 정도 보건소에서 나와 침을 놓아주거나 혈압과 당뇨를 체크해 준다고 한다.

지역의 보건(지)소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보건(지)소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다. 그럴 경우 주민들이 겪은 불편들은 적지 않다. 가장 불편을 겪는 사항은 교통의 불편이다. 면이나, 읍내로 나가는 교통편이 많지 않고 또 차를 타기 위해서는 정류장까지 한참을 걸어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물론 이웃의 교통수단을 얻어 탈 수도 있고 면소재지나, 읍내의 택시를 불러 탈 수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주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 길곡2리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마을주민들은 제원면의 보건지소와 금산읍내의 보건소와 병원을 다니곤 한다. 하지만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제원면에는 택시가 없기 때문에 금산읍내의 택시를 불러야 하는데 한번 부르면 보통 1만7천 원내지 1만8천 원이 소요된다. 마을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계마을 내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마을에 따라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가장 많은 실행되고 있는 방법이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 안에 안마기의 설치이다. 고된 농사일로 얻은 관절염과 디스크 등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보광리의 경우, 이 마을 출신 출향민이 안마기 2대를 기증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길곡2리의 경우, 마을에서 온열안마기 2대(약 100만 원 상당)를 구입하고 면에서도 1대를 구입해줘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안마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신동2리의 경우, 마을회관에 안마기가 2대 있으나 전기료가 많이 들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광리의 경우, 마을회관 내 건강증진시설 및 운동시설이 부족해 마을회관 앞에 운동시설 설치를 면사무소와 군청에 요구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해 이 마을 이○○ 이장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5) 한계마을의 교통 및 도로 여건

한계마을이기 때문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교통의 불편함이다. 대부분이 고산지대나 오지에 있다 보니 대중버스 등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 따라서 버스운행 횟수가 적거나 접근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한계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교통편을 늘려주기를 바라지만, 이를 관장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서는 효율성면에서 교통편을 늘려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어촌의 교통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적자상태라 정부가 운수회사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인 상황에서 한계마을까지 교통편을 늘려주자면 그 적자 폭은 늘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들 마을에 대한 지원도 소홀할 수 없는 입장에서 교통문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계마을 주민들이 면소재지나 읍내에 출행할 때 대부분은 버스를 이용한다. 조사된 8마을 가운데 목소리를 제외하면 모두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버스이용에도 마을별로 차이가 난다. 버스가 직접 마을 안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가까운 도로까지 오는 경우이다. 마을 안쪽까지 들어오는 경우에도 편수의 차이가 있고, 마을에서 가까운 도로까지 오는 경우는 마을에서 도로까지 가는 시간적 차이가 다르다. 먼저, 마을 안까지 버스가 들어오는 경우를 살펴보자. 보광리, 신동2리, 백암3리의 경우 버스가 마을 안까지 들어온다. 하지만 각각의 사정을 다르다. 보광리의 경우 버스가 하루에 6번 들어온다. 하지만 마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버스가 마을을 지나 마을 위쪽을 지나 면소재지 방향으로 빠지면 좋겠지만 마을 위쪽의 도로는 폭이 좁고 막혀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불편이 있다. 신동2리, 용화2리, 백암3리의 경우에는 마을 내로 버스가 하루

에 3번, 5번, 8번 들어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한다. 특히, 백암3리의 경우 마을이 외지고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이 마을은 금산군과 대전광역시의 경계지역이고 또한 금산군보다는 대전광역시와 가까워 이쪽에서 오는 버스가 다소 많은 편이다. 이에 반해 버스를 타기 위해 마을 앞 도로까지 나가야 하는 마을도 있다.

조사된 마을 가운데 가장 불편을 겪는 마을은 오항2리의 경우이다. 마을 밖 도로까지 하루에 2번의 버스가 있다. 버스를 타기 위해 이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보로 약 30분을 걸어 나가야 한다. 종종 마을 내 자가용을 얻어 타고 출행을 하기도 하지만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거의 한 시간을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다. 진산면에서 택시를 부를 경우에는 약 1만 원의 택시비용이 소요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이 마을에 안희정 도지사가 방문한 이후 마을 앞길이 확·포장되어 도로 여건이 다소 좋아졌다는 점이다. 어제2리도 비슷한 경우이다. 마을 밖 입구에 하루 2번의 버스가 있지만 보통 어른의 경우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20-30분을 걸어야 하고, 고령자는 약 1시간을 걸어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다. 목소리의 경우에는 도로에서 마을까지 들어오는 도로의 폭이 좁고 버스도 적어 보통 경운기를 이용해 면소재지에 출행을 한다고 한다. 물론 주민 가운데는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자가용 출행도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경운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통 및 도로여건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8마을 주민 대표 중 절반 해당하는 4마을의 주민 대표는 열악하다고 평가했고 나머지 절반은 괜찮거나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표 5〉 한계마을의 주요 교통 및 도로 여건과 주민 평가

마을명	교통수단	운행현황	주민 평가
오항2리 (오항동마을)	버스	마을 밖 입구에 하루 버스 2번 있음. 그러나 마을입구까지는 약 30분을 걸어 나가야 함. 가끔씩 마을 내 자가용을 얻어 타고 출행함.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거의 한 시간을 걸어나감. 진산면에서의 택시비용은 1만 원임.	열악한 편임. (최근 도지사 방문 후 마을앞 도로 확·포장됨)
보광리 (보광마을)	버스	버스가 하루에 6번 들어옴. 하지만 도로가 좁고 막혀있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불편이 있음.	괜찮은 편임.
길곡2리 (재뒤마을)	버스	마을 앞 도로까지 버스가 하루에 3번 운행 (6:30, 14:35, 19:45)	열악한 편임.
용화2리 (가마골마을)	버스	버스가 하루에 5번 들어옴.	괜찮은 편임.
어제2리 (압수마을)	버스	버스가 하루 두 번 있음.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어른은 20-30분, 어르신은 1시간을 걸어 나가야 탈 수 있음.	열악한 편임.
신동2리 (사기소마을)	버스	하루에 3번 버스가 마을 앞까지 들어옴.	좋은 편임.
백암3리 (배미마을)	버스	하루에 8번 버스가 들어옴. 교통의 불편함은 적음.	보통임.
목소리 (바탕골마을)	경운기	경운기를 많이 이용함.	열악한 편임.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 및 도로 여건에 대해 마을주민들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향후 교통 및 도로 여건의 개선 방향에 대해 마을 내 진입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보광리, 길곡2리, 백암3리, 목소리)거나 읍내까지 오가는 버스의 편수를 늘려야 한다(길곡2리, 어제

2리, 신동2리)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오항2리의 경우에는 대형버스의 운행편수 증가보다는 마을 앞까지 들어올 수 있는 소형버스의 운영을 요구했다. 이 문제에 관해 군청에도 여러 건의를 했지만 사람이 적기 때문에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장날만이라도 버스를 마을 안쪽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매일 버스를 운행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버스의 증편 또는 소형버스의 운행은 지자체의 경우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 차원의 소형 버스의 운행은 어렵지만 먼단위 사업기관의 소형버스 운행은 가능해 보인다. 어재2리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부리면에 위치하고 있는 어재2리는 지방도로에서 골목진 길을 약 20분 정도 들어가야 닿는 마을이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은 눈이 오면 교통이 두절되기 때문에 생필품은 주로 지역농협에 주문배달을 시킨다. 부리농협은 배달차량으로 봉고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1일 2차례 면소재지를 순회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물건을 사기 위해 굳이 읍내까지 나가지 않아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배송료는 없고, 농협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기관의 이러한 배송서비스는 한계마을 주민들이 겨울철에 굳이 읍내에 나가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교통에 취약한 이곳 주민들에게는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지역사회의 이러한 작은 서비스가 모아지고 확대된다면 교통과 물건구매에 취약한 한계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

1) 영농형태와 유희 농경지 현황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토지의 공동화다. 마을 내 청장년층이 점점 줄어들고 남은 인구의 점진적인 고령화로 마을의 토지는 농기계가 접근하기 힘든 경사지 농지부터 점점 유희화되어 간다. 대부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한계마을에서 농경지의 유희화는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마을의 쇠퇴를 보여주는 표상이기도 하다. 더욱이 한계마을이라는 불리한 여건 때문에 겸업소득도 마땅치 않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감소는 곧 농가의 영세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와 같이 농업인에 대한 연금과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상태에서 농업소득의 감소는 농촌 전반이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된 8마을은 전부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삼고 있다. 주요 품목은 마을마다 다양하지만 그 생산량은 많지 않다. 주요 품목은 인삼과 고추, 깻잎, 콩재배가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벼, 복숭아, 땅두릅 등이 약간 재배되고 있다. 백암3리에서는 일부 농가가 조경수재배를 주요 소득원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8마을 가운데 6마을은 겸업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2마을이 약간의 겸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길곡2리의 경우, 1명은 주중에 읍내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다른 1명은 인근 육가공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소리의 경우, 1명이 인근 청국장 가공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6〉 한계마을 주민의 영농형태 및 겸업소득 유무

마을명	주소득원	주요 품목	겸업소득 유무
오항2리 (오항동마을)	농 업	콩, 들깨 약간	없음
보광리 (보광마을)	농 업	딸기묘목, 인삼, 과수	없음
길곡2리 (재뒤마을)	농 업	인삼, 고추, 콩	주중에 옷가게, 육가공회사 근무(2명)
용화2리 (가마골마을)	농 업	깻잎, 인삼, 미작, 복숭아	없음
어재2리 (압수마을)	농 업	벼, 콩, 고추	없음
신동2리 (사기소마을)	농 업	고추, 콩, 깻잎, 인삼	없음
백암3리 (배미마을)	농 업	깻잎, 인삼, 콩, 조경수	없음
목소리 (바탕골마을)	농 업	깻잎, 땅두릅, 고추, 콩	인근 청국장 가공공장 근무(1명)

조사된 8마을의 논과 밭의 비율은 보면 많은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동2리처럼 논 면적이 90%를 차지하는 곳도 있고, 백암3리의 경우 밭 면적이 90%, 목소리의 경우는 밭 면적이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 농경지보다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우스재배의 경우 용화2리의 경우에만 밭 면적의 약 10%만 차지할 뿐 다른 마을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계마을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고령화라는 인적 요인이 맞물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마을에서 농경지의 유희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조사된 마을 가운데 신동2리, 백암3리, 목소리의 경우에는 유희농경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길곡2리, 보광리, 어재2리의 경우에는 농경지 가운데 휴경지가 각각 30%, 50%,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화2리의 경우에는 밭 면적의 90%, 논 면적의 10%가 유희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7〉 한계마을의 전답 비율과 유희면적 현황

마을명	논면적 비율	밭면적 비율	유희면적 비율
오항2리(오항동마을)	20%	80%	80-90%
보광리(보광마을)	30%	70%	50%
길곡2리(재뒤마을)	40%	60%	30%
용화2리(가마골마을)	20%	70%(하우스10%)	밭의 90%, 논 10%
어재2리(압수마을)	50%	50%	60%
신동2리(사기소마을)	90%	10%	거의 없음.
백암3리(배미마을)	10%	90%	거의 없음.
목소리(바탕골마을)	0%	100%	거의 없음.

마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농지를 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감소와 노령화이다. 인구가 감소는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첫 번째는 노동력의 부족이다. 농업의 특성상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마을 내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공동으로 진행될 농사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두 번째는 농작물을 지킬 인력의 부족이다. 마을 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경지를 빈번히 침범해 농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항2리와 어재2리의 경우가 특히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고령화는 농사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전에는 농기계 등이 들어갈 수 없는 경사진 곳에도 인력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태이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농자재를 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고 어렵게 수확하더라도 농작물을 가지고 나오기도 힘들다.

2) 농지거래 실태와 주민의 반응

우리나라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지의 거래와 소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경자유전의 법칙에 근거해 농지는 예외적인 몇 가지 규정을 제외한다면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이 다르다. 농지가 재산증식을 위한 하나의 투기대상으로 되면서 외지인, 특히 도시인들의 농지소유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전원생활을 즐기고 영농을 부업으로 삼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농지만 구입하고 영농활동은 서류상으로 기재하면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농지를 하나의 투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 분위기를 타고 매입가격보다 비싸게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한계마을에서의 농지 및 토지거래는 어떠한 상태일까?

최근 5년간의 추세를 보면, 마을 내 농지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지인의 토지구입은 이미 이전에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마을주민들도 자신의 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지의 매도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금산지역은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세종시와도 그다지 멀리 떨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려는 주민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길곡2리, 용화2리, 어재2리, 신동2리, 목소리 등에서는 최근 5년간 마을 내 토지가 거의 매매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마을 가운데 비교적 오지마을에 속하는 오항2리의 경우에는 농지와 빈집에 대해 물어오는 사람도 없고 토지를 판다는 주민도 없는 상태이다. 다른 마을에서는 토지 구매를 위해 물어오는 사람은 있지만 팔려고 하는 주민이 없어 매매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토지매매가 최근에 이뤄지지 않았을지라도 그전부터 이미 상당부분 토지매매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마을 내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광리의 경우 외지인의 토지 소유가 마을 전체 토지의 약 30%를 차지한다. 외지인들은 귀농준비, 전원생활의 목적으로 마을 내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 이 마을 토지가격이 평당(3.3m²) 10만 원 선으로 비교적 저렴한 점이 외지인 유입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길곡2리, 어재2리, 백암3리에서도 외지인의 토지소유 비율이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재2리의 경우 마을 내 문중 토지가 많은 상태에서 마을주민의 토지와 외지인 소유의 토지가 각각 절반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암3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을 내 토지의 절반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 토지의 평당(3.3m²) 가격이 25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지만 이곳 마을은 풍광이 좋고 대전광역시와 가까운 지리적 장점이 있어 마을 내 토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 내 토지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가 개인의 소유이고 이를 매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농촌에서 토지의 매매는 곧 공동체의 파괴에 결부되기 때문에 신중을 요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마을 내 한 개인이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경우 가급적이면

마을 내 주민, 혹은 가까운 거리의 사람에게 매도하곤 한다. 이러한 마을 내 관습적 규정으로 마을 내 공동체성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마을 내 토지거래에 대해 주민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된 8마을 대부분에서는 농지의 매매가 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광리 마을 이장의 말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은 개인의 토지거래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마을 내 전원주택조성 사업 계획 시 외지인의 토지 소유로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 이 사업은 결국 좌절됐다. 이에 대해 이곳 마을 이장은 다소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길곡2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내 개인의 토지거래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막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대전 쪽 사람들이 4-5군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된다면 이곳 마을 분위기가 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어재2리의 경우에는 토지의 외부거래에 대해 가급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재2리 장○○ 이장은 현재와 같이 마을 내 인구가 줄어들고 외지인들에게 토지를 매도한다면 향후 마을 내에는 10여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마을주민들이 나중에라도 공동주택을 장만해 함께 생활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외지인들에 의해 토지가 분산 소유되고 가격 또한 상승된다면 주민들이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한계마을 주민들의 향후 경작지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자식들이 농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의견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자식들 또한 귀향의사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겠지만 이후 자식들이 토지를 팔아버리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하고 있다. 물론 보광리, 길곡2리, 백암3리와 같이 마을 내에 조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어 일 년에 1-2차례 출향민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는 후손들이 마을 내 토지를 쉽게 처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마을의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3.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변화 실태

1) 마을 내 공동체 조직과 활동 현황

한계마을의 마지막 특징 중의 하나는 공동체의 공동화이다. 농촌마을 내 인구의 과소화와 노령화는 곧 농촌공동체 활동의 해체로 이어진다. 상조계, 대동계, 마을제사 등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활동 등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마을 내 경제조직이라 할 수 있는 작목반 등도 점점 사라지게 된다. 노령인구가 늘고 청년들이 줄어들어 따라 마을 내 노인회는 증가하고 청년회조직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농촌의 활력을 감퇴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을의 활력이 감퇴되고 있다는 증거는 마을 내 조직 활동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 <표 8>을 보면, 현재 한계마을의 공동체조직 현황을 알 수 있다. 먼저 대동계를 보자. 대동계는 자연부락 단위에서 청년, 장년, 노년층이 모두 모여 한 해의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다음해 마을의 사업을 계획하는 토론하며 마을주민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모임이다. 이러한 대동계는 보통 자연마을이라면 거의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모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된 8마을 가운데 대동계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은 5마을이고 3마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이 과소화, 고령화되어가면서 마을 내 공동체 살림살이가 점점 해체되고 개별화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된 마을 가운데 노인회는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부녀회 또한 대부분 70세 이상이며 전체 인구가 12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오항2리를 제외하면 모두 유지하고 있었다. 8마을 가운데 청년회는 2마을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나마 신동2리의 경우에는 청년회 회원이 4명에 불과했다. 작목반 또한 2마을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또한 다른 마을과 연계하여 결성된 작목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은 깻잎과 고추였다. 8마을 가운데 전통민속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은 3마을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8〉 한계마을의 공동체조직 현황

마을명	대동계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작목반	전통민속
오항2리(오항동마을)		○				
보광리(보광마을)		○	○			
길곡2리(재뒤마을)		○	○		○	
용화2리(가마골마을)	○	○	○			○
어재2리(압수마을)	○	○	○	○		
신동2리(사기소마을)	○	○	○			○
백암3리(배미마을)	○	○	○	○	○	
목소리(바탕골마을)	○	○	○	○	○	○

이들 마을 가운데 전통민속 활동을 가장 잘 유지 및 보존하고 있는 마을은 보광리다. 이 마을은 효령대군 후손 집성촌으로 이씨 제각이 있어 일 년에 1-2차례 후손들이 모여 제사를 지낸다. 이때는 출향한 후손들도 대부분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이 마을 이○○ 이장은 어렸을 때부터 마을산제, 대보름 쥐불놀이, 당산나무제 등을 지내면서 자랐는데 지금은 효령대군 후손들의 시제 이외 다른 전통민속 활동들은 대부분 사라지게 되어 아쉬움을 나타냈다.

2) 마을주민의 주요 참여 활동 현황

비록 예전보다는 활력이 떨어지지만 한계마을에서도 마을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대동계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주민들 간 화합과 친목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도 하고, 칠순과 팔순 때는 당사자 가족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몇몇 마을에서는 아직 미풍양속이 남아있어 마을 청년들이 일 년에 한 두 차례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작은 잔치를 벌이기도 한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마을 자체의 기금을 주로 활용하고 기타, 농협이나 외부 기관에서 지원하는 약간의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마을 내 기금이 비교적 풍족하거나 외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을 경우에 마을주민들은 일 년에 한 차례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관광을 떠나기도 한다. 금산지역이 산간지대이다 보니 행선지는 주로 해안가 쪽을 많이 선택한다.

다음 <표 9>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광리의 경우 마을청년회에서 매년 한두 차례 경로잔치를 벌인다. 금년 보름에는 경로당에서 마을주민들이 함께 오곡밥을 먹기도 했다. 길곡2리의 경우 자체적으로 노인잔치를 벌인다. 이때 외부 지원은 거의 없고 농협에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준다고 한다. 칠순이나 팔순 때에는 시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한다. 백암3리의 경우 1년에 한 번씩 (대)동계를 가지는데 보통 10월 30일에 개최한다. 이때 마을의 자산에 대해 결산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한다. 경로잔치는 마을에 기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조사된 8마을 가운데 4마을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마을 자체적으로 외지 관광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옥천(관성) 옥씨 집성촌인 용화2리의 경우 매년 봄철에 해안가 쪽으로 관광을 다닌다고 한다. 마을 소유의 공동경지를 처분한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별도의 회비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마을은 집성촌이기 때문에 마을주민 간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도 자신의 마을이 '정감이 있는 마을'이라고 느끼고 있다. 보광리에서도 일 년에 한두 차례 외부 관광을 다니는데 관광비용은 마을기금과 마을 내 사찰(수정사)의 지원금, 농협지원금, 출향민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조사된 마을의 공동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마을 내 공동체 활동 및 외부 활동 현황

마을명	마을 내 공동체 활동 현황	외부 참여 활동
오항2리 (오항동마을)	마을 내 모임은 거의 없지만 가끔씩 칠순과 팔순 때 잔치를 벌이곤 함.	다른 마을과 교류 거의 없음.
보광리 (보광마을)	자체적으로 노인잔치를 함. 외부 지원은 거의 없고 농협에서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줌. 칠순과 필순 때에는 시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함. 상이 있을 때는 마을주민들이 다 모이지만 사람이 없어 보통 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치름.	전에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몇 십만 원을 지원해 행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음. 먼 체육대회 때는 차량을 지원받아 참석함.
길곡2리 (재뒤마을)	겨울철(11월에서 3월까지) 등 농한기에는 점심과 저녁의 마을회관에서 함께 먹음. 이 마을은 옥천 육씨 집성촌이기 때문에 마을주민 간에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음.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이 '정감이 있는 마을'이라고 표현함.	매년 봄철에 해안가 쪽으로 관광을 다님. 마을 소유의 공동경지를 처분한 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별도의 회비는 받지 않음.
용화2리 (가마골마을)	마을 자체모임 시 종종 면이나 농협에서 술, 음료수, 떡 등을 약간 지원함.	-
어재2리 (압수마을)	마을행사 시 면에서 소주 1박스, 농협에서 10만원 지원하고 그 외 청년회의 지원과 마을기금, 개인 후원으로 충당함.	-
신동2리 (사기소마을)	1년에 한 번씩 (대)동계를 가짐. 이때 마을의 자산에 대해 결산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함. 보통 10월 30일에 개최함. 또한 경주 최 씨들은 문중 제실이 있어 일 년에 몇 차례 제사를 지냄. 경로잔치는 마을에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음.	동계에서 일 년에 한번 남해안 쪽으로 여행을 떠남. 경비는 이전부터 내려온 마을기금과 이동통신사가 마을 공동 소유 산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매년 300만 원을 마을에 지원해 줘 이 자금으로 마을행사를 치름.
백암3리 (배미마을)	마을 총회 시 함께 모여 음식을 먹음. 마을회관이 리에 하나있어 자주 모이지는 못함.	마을 기금으로 매년 한 차례 해안가 쪽으로 관광을 함.
목소리 (바탕골마을)	마을청년회에서 경로잔치를 벌여 참여함. 금년 보름에는 경로당에서 오곡밥을 함께 먹음.	일 년에 한두 차례 외부 관광을 다님. 관광비용은 마을기금, 마을사찰 지원금, 농협지원금, 출향민 지원금 등으로 충당함.

마을 내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마을에는 사당이나 마을정자 등이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으며, 유서 깊은 마을의 경우에는 문중의 조상을 모시는 제실이나 제각이 있어 후손들이 모이곤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마을 내 마을회관이 대부분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와서는 마을회관보다는 마을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경로당이 많이 설치되어 왔다. 또한, 마을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의료 관련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 공동체 시설 현황을 보면, 모든 마을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 하나는 갖추고 있었다. 마을 규모가 비교적 큰 보광리의 경우에만 마을회관이 1곳, 경로당이 2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을정자의 경우에는 오항2리와 어재2리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는 모두 존재하며 마을 내 사당 등 전통시설은 8마을 가운데 5마을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보광리는 앞서 설명했듯 효령 이씨의 제각이 있어 후손들이 1년에 한두 차례 보여 제를 올리고 있으며, 길곡2리의 경우에는 전주 이씨 제당이 있어 일 년에 한두 차례 제를 올리고 종친회 모임도 가지는데 이때 모두 50-60명의 후손이 찾아온다고 한다. 이 제당은 옛날에 장수였던 한 전주 이씨의 선조가 모셔져

있다고 한다. 용화2리는 옥천(관성) 육씨의 집성촌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에 영모제에서 시제를 지낸다고 한다. 옥천 육씨의 시조는 중국의 8역사의 한 명으로 조선에 왔다가 경순왕의 사위가 되어 정착하게 됐다고 한다.

〈표 10〉 마을 내 공동체 시설 현황

마을명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정자	사당 등 전통시설
오향2리(오향동마을)		1		
보광리(보광마을)	마을회관 겸	경로당	2	전주 이씨 제실
길곡2리(재뒤마을)		1	1	전주 이씨 제실
용화2리(가마골마을)		1		육씨 영모제
어재2리(압수마을)	1		1	기우제비
신동2리(사기소마을)		1	1	
백암3리(배미마을)	마을회관 겸	경로당	1	경주 최씨 제실
목소리(바탕골마을)	1		2	

마을 내 공동체시설 가운데에서도 가장 자주 찾고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마을회관 혹은 경로당이다. 보광리를 제외한다면 다른 모든 마을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겸용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이곳 마을회관을 자주 찾는데 특히 겨울철(11월에서 3월까지)에는 이곳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 주민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농한기이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겨울철에 개별 가구의 난방비가 비싸기 때문에 낮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매일 이곳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곳에서 공동으로 식사도 하고 종종 숙박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겨울철에는 마을회관에 운영비(난방비+관리비)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쌀을 지원하고 있다.

오향2리의 경우 금산군에서 매년 가을부터(11월) 이듬해 2월까지 마을회관 운영비(난방비와 관리비)로 대략 210만 원이 지급한다. 길곡2리의 경우, 군에서 겨울철에 기름 3드럼과 매달 쌀 20kg 짜리를 지원해준다.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22.5만 원(이전 20만 원)을 지원해준다. 용화2리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지원을 받는데 연료비는 1년에 두 번, 모두 5드럼(한 드럼은 약 28만 원)을 지원받고 운영비는 20만 원씩 두 번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이를 모두 더하면 1년에 약 170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는다. 마을주민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은 크게 부족함이 없는 지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목소리의 경우에는 인근 사찰에서 매년 200만 원을 지원해줘 마을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어 다른 마을에 비해 마을운영비가 비교적 풍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3) 마을주민의 생활만족도, 계속 정주 의향 및 주민 친화도

그렇다면 한계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현재의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8마을 대표의 응답 결과 4마을 주민대표는 현재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을 했고, 3마을 대표는 만족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한 마을대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것 없다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교통의 불편이 많았고(길곡2리, 목소리),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에 가더라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 마을에서 산다는 의견도 있었다(어재2리). 용화2리 같은 경우에는 수변보호구역이라 규제가 심해

주택허가를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이곳은 수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등에서 지원금(1,700만 원 정도)이 나와 마을회관 시설구입 및 운영비로 사용한다고 한다.

한계마을 주민의 계속 정주 희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마을 가운데 6마을 주민대표는 마을주민들이 계속 정주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길곡2리와 어재2리 대표는 계속 정주하는 것을 희망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산다고 응답했다.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고향에서 계속 정주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농촌노령연금도 적은 상황에서 농촌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을주민들 간 친화도를 보면, 8마을 대표 가운데 6마을 주민대표는 예전과 비교해 변함이 없거나 좋아졌다고 응답한 반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마을대표는 2마을로 나타났다. 주민들 간 사이가 나빠진 이유를 보면, 도시민들이 들어오면서 자기 땅을 측량해 마을길을 잠식하면서 새로운 전입자와 기존 주민 간 불화가 있는 사례(길곡2리)와 종친별로 파벌이 있고 종종 토지분쟁도 있는 사례(어재2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한계마을 주민의 계속 정주 여부와 주민 친화도

마을명	계속 정주 여부와 그 이유		주민 간 친화 정도와 그 이유	
	계속 정주 여부	이유	주민간 친화 정도	이유
오항2리 (오항동마을)	계속 희망함		변함이 없음	
보광리 (보광마을)	희망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음.	교통이 불편함.	더 나빠짐	도시민들이 들어오면서 마을 분위기가 안 좋음. 도시인들은 자기 땅을 측량해서 마을길들을 잠식함.
길곡2리 (재지마을)	계속 희망함	현재 편하게 잘 살고 있음.	변함이 없음	변함없이 좋은 편임.
용화2리 (가마골마을)	희망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음.	희망이 없음. 연금이 차등 지원되어야 함. 농촌에서 20-30만 원의 연금으로 살 수 없음.	더 나빠짐	종친별로 파벌이 있고 토지분쟁도 종종 발생함.
어재2리 (압수마을)	계속 희망함		변함이 없음	
신동2리 (사기소마을)	계속 희망함		변함이 없음	
백암3리 (배미마을)	계속 희망함		더 좋아짐	인근 산에서 정부의 우리농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심했는데 지금은 화해를 하고 잘 지냄.
목소리 (바탕골마을)	계속 희망함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도시로 나가려고 하지 않음.	변함이 없음	생활에 여유가 없어졌지만 주민들끼리 잘 살아보려고 노력함.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한계마을에 대한 분석 단위를 기존의 리단위에서 자연부락 단위로 분석을 했으며

분석방법 또한 기존의 정량적인 분석에서 정성적인 방법을 이용해 심도있게 분석했다. 사례마을의 선정은 기존의 리단위 통계에서 인구 50인 이하 혹은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인 행정리 가운데 과소 혹은 고령의 자연마을을 선정했다. 조사대상 마을 선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전에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기도 했지만 물리적 제한으로 전체 지역을 다닐 수는 없어 면 사무소의 담당 직원과의 사전 확인작업을 거친 후 최종 조사대상 마을을 선정했다. 분석내용은 크게 네 부분, 즉 마을인구 및 정주환경 변화 실태, 토지이용 및 환경변화 실태, 공동체 활동의 현황과 변화 실태, 한계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정책적 태도에 관한 내용 등으로 나뉜다. 본 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한계마을을 결정짓는 요인은 고령화율보다는 인구의 규모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오항2리(24명)와 용화2리(37명)의 경우에는 마을주민의 수가 적고 고령화율이 높다 보니 마을주민들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욕도 낮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에 반해, 보광리의 경우에는 마을인구 67명 중 37명이 65% 이상의 고령인구였으나 마을 내 보존되고 있는 전통자원과 자연풍광을 이용한 전원마을 조성 계획 등 마을주민 스스로 마을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전부터 어느 정도 마을 규모가 있다 보니 최근 들어 귀농·귀촌자들이 늘고 있고, 마을 중친회 등도 활성화되어 있어 향후 마을개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면 이 마을은 어떤 식으로든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도로 및 교통여건은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될 수 없다.** 앞의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항2리, 어재2리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도로와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 지역의 교통이 개선된다고 해서 인구가 증가하거나 마을이 발전된다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용화2리의 경우 마을 앞까지 버스가 하루에 6번 들어오지만 이 마을의 인구는 줄어 들고 있다. 백암3리의 경우에도 대전으로부터 하루에 8차례 버스가 들어오지만 마을 내 인구가 크게 증가하거나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목소리의 경우에는 하나의 행정리 단위 안에 5개의 자연부락이 있고 이들 자연부락 간에는 산을 끼고 있어 교통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계마을 주민들이 도로와 교통여건의 불편함을 많이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통과 도로의 여건이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의 행정리 안에서도 큰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계마을의 특징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겸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작물은 인삼, 깻잎, 콩, 벼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겸업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10마을 가운데 2마을에서 3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구가 적고 고령이다 보니 대부분의 한계마을에서는 농업 이외의 소득은 거의 없는 취약한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다.

넷째, **한계마을의 특징 중의 하나인 휴경지 면적 또한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결정적 요인은 되지 못한다.** 한계마을 가운데 휴경지가 거의 없는 마을(백암3리, 신동2리, 목소리)에서 경지 면적의 50% 가까이 휴경지인 마을(오항2리)까지 그 편차가 매우 컸다. 물론 휴경지가 많은 마을이 한계마을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한계마을이라고 해서 모두 휴경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한계마을의 특징 중의 하나는 마을 내 공동체조직이 적고 그 활동도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청년회, 작목반, 전통민속 활동조직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10마을 가운데 3마을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민들은 겨울철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주로 모여 생활하며 일년에 한 두 차례 마을기금으로 단체관광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보광리, 길곡2리, 용화2리, 백암3리처럼 마을 내 제각이 있어 후손들이 일 년에 한 두 차례 시제를 지내는 것 외에 마을 내 공동체 활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부분의 한계마을은 자신의 마을이 한계마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마을이 한계마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책투입이 필요하다고 응답**

했다. 정책 투입이 필요한 부분은 도로 및 교통여건 개선, 노령복지연금 등의 확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의 시설 확충, 의료서비스 확대, 마을주민 간 공동체 활동의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이상으로 금산군 내 한계마을의 특징을 8개의 자연부락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했지만 한계마을을 특징짓는 주요한 변수는 인구규모와 고령화율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한계마을의 특징은 인구규모와 고령화율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여기에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변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예시된 8개의 한계마을(행정리)에 대해 정량적 조사와 정성적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평가를 하면 아래 <표 12>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12> 8개 한계마을에 대한 재평가 결과와 그 이유

기존 한계마을	선정 기준	재평가 결과	그 이유
오항2리 (오항동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 과소, 교통여건 불리
보광리 (보광마을)	해당지역 공무원 추천	비한계마을	고령인구가 50%가 넘지만 마을가구수와 외지인의 유입이 많고 마을 전통도 유지되고 있음.
길곡2리 (재뒤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 교통, 주민의지 빈약
용화2리 (가마골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의 마을주민들이 외지인의 유입을 원치 않아 스스로 한계마을이 되어감.
어재2리 (압수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 교통여건 불리, 쇠락
신동2리 (사기소마을)	통계 수치	한계마을	고령, 마을 내 추진사업 미진
백암3리 (배미마을)	통계 수치	비한계마을	고령인구가 많고 산간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전에서 들어오는 버스편도 많고 외지인의 유입도 많음.
목소리 (바탕골마을)	해당지역 공무원 추천	반한계마을	2개 자연마을은 비한계마을이고 3개 자연마을은 교통이 불편한 한계마을임.

위의 표에서처럼 기존의 8개 한계마을(행정리)을 조사한 결과 5개 마을은 한계마을로 판명났으나 3개의 마을은 한계마을이 아니거나 반한계마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한 이유는 보광리와 백암3리처럼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교통편이 좋아지는 이유도 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소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계마을은 아니지만 자연마을 단위로 보면 한계마을과 비한계마을이 섞여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같은 행정리 안에서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계마을에 대한 설정을 단순히 기존의 리단위 행정구역 통계상의 인구규모와 고령화율만으로는 확정될 수 없는 복잡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마을을 설정하는 데에는 정량과

정성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을의 활력도, 주민들의 의지, 행정리 안의 자연마을 간 격차 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참고문헌

성주인·박시현, 2012, 농어촌 마을의 정주 여건과 재정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6차 농어촌지역 정책포럼(2012.6.12), pp. 3~48.

이병기, 2010, 농촌 과소화 실태와 전망,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4호, pp. 773~797.

조영재 등, 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조준범, 2009,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과소화 특성에 관한 연구 - 전남 장흥군을 중심으로,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제21권 제3호, pp. 163~182.

충남발전연구원, 2014, 마을에서 희망을 이야기하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9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한경원, 2012, “낙후지역 개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황달기, 2004, “일본 농촌사회의 전통적 사회시스템의 붕괴와 재편-촌락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4집 2호, pp. 207~246.

大野晃, 2008, 『限界集落と地域再生』, 京都新聞出版センター.

過疎地域問題調査會, 1993, 過疎地域問題調査報告書.